

#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내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

## 화를 내면 몸에서 독소물질이 나와

아무리 무력이 강하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이 땅위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능력이 있는고로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를 뒤집어엎는 능력과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는 능력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 이제그대로 이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고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지만, 죽지 않는 마음을 갖거나 죽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논했습니다. 죽을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썩는 마음이고, 나라의 주체의식이 육신을 버린다면,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이는 독소물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화를 내면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라를 항상 버려야 하는 이유

이제그대로 불안전한 마음을 갖는다면지 공포심을 갖는다면지 놀란다면지 하면 피가 썩는 것입니다. 피가 썩어서 늙고, 썩은 피 속에서 병균이 생겨가지고 암 세포를 조상해 주는 것입니다. 피 속에 생명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썩는다면 썩은 피 속에는 생명의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썩으면 죽는 것입니다. 피가 썩으면 늙고, 이제 병 걸려서 사람이 죽고, 노인네들 얼굴에도 검버섯이 생기고 손에도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피로

만들어진 세포가 검버섯이었고고로 그리고로 썩은 피가 많으면 검버섯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를 썩게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피가 썩는고로 그리고로 성경이나 불경에는 “나라를 항상 버려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미친놈은 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게 예수를 믿어서, 나라의 게 천당 간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라를 항상 버려라.”고 했으니 까 나라의 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건 이제그대로 구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라는 것은 마귀의 영이요, 사마의 영이므로 반드시 나라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로 나라의 의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꼭 죽고 마는 것입니다.

## 나라는 의식이 생각만 하면 피가 썩어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만 하면 피가 썩는고로 나라의 주체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뭘지도 모르는 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선악과요, 사자귀신이고로 그리고로 성경이나 불경상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나라의 주체의식은 구원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되어야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라의 의식이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고로 그리고로 나라의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리니 너희



구세주 조희성님

마음속에 있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이 이간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렸나면 마귀가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마귀가 다스렸는데 마귀가 집권하는 마귀의 정부를 전부 이 사람이 부순 것입니다. 그 마귀의 정부를 부셔버리니까 이제 마귀의 쫓겨나고, 마귀가 오면 비를 오게 하는 마귀가 있는데 이제그대로 풍운조화를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해골통을 깨서 이간자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간자가 이제그대로 비를 못 오게도 하고, 태풍을 못 불어오게도 하고, 이제그대로 공산주의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지겹고 공산주의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니까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로 오늘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다면지 이 사람이 풍운조

화를 마음대로 하는 걸 보아 이제그대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훤히 내다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분명히 이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주체의식이 원래 하나님이었으나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이 하나님을 마귀 욕에 가둬놓고 마귀가 주체 영이 되면서 인간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생의 영이므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고, 또 한 이제그대로 선한 마음 양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본능적인 마

음이 있는고로 그리고로 영생의 희망을 갖고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게 되고로 하나님이 영생의 은혜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슬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그대로 피가 영생의 피로 변하고, 영생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가증스럽게 이 중인격을 가지고 사람 보는 데는 잘 믿는 척하다가 사람 안 보면 이제그대로 개차반으로 놀면 그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목숨과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제그대로 충성을 안 하고 표리부동하게 어느 때는 잘했다가 어느 때는 안 하고, 어느 때는 제단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때는 제단 안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인간의 탈 벗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6000년 인류 역사 동안 구세주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 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고 또한 “하루가 천 년 같다.”는 말씀이 기록돼 있는고로 옛새나 6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회복할 구세주를 만드는 일을 이제 6000년 걸려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로 구세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죽는 이 죄악세상을 완전히 죽지 않는 세상으로 뒤집어엎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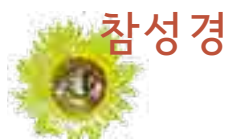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구세주가 나왔으니 구세주를 뜻대로 삼고 열심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자유울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제그대로 여자를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여자는 남자를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벗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울법이라는 건 죄 짓지 않는 법이요, 자유울법이라는 건 마귀를 이기는 율법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과거를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음란죄가 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려면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의 의식이 과거를 살았던고로 과거를 생각하려면 과거를 살았던 마귀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 과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마귀의 영이 다시 들어온 것이 이것이 음란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이것이 죽을죄라는 걸 예수가 석가모니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가 도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과거를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가 없고 나를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돌입해 들어가야 나를 버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내가 없다가 되는고로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고, 생명의 과일을 먹었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가 되고, 믿음을 가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제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 7월 1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2장 이삭의 하나님》 (11) 이삭이 여호와와의 향취를 맡고서야 축복함

### (11) 이삭이 여호와와의 향취를 맡고서야 축복함

아담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삭은 사슴요리를 먹으면서 복을 빌어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마음에 없는 빈말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아들 야곱에게 그만 양심을 속이고 이제 고백하려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사슴요리를 이리 가져오너라.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복을 빌어주마.”

이삭은 고기를 먹는 동안에도 아들 야곱이 자신 스스로 에서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자 매우 인짱은 말투로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아버지 이삭이 벌떡 마시고는 야곱더러 자신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의 아들이 끝까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대는 입으로 아버지의 입술에 차마 입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으로서의 참는 데도 한도가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에서를 가장한 야곱이 자신을 속인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

이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순간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향취를 맡은 것입니다.

그 향취는 세상의 꽃향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윽하고 또한 인공적으로 제조된 그 어떤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향취를 맡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썩은 양식을 먹지 않고도 배고픈 줄 모르고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으며 더구나 죄와 상관 없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실 적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향취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삭은 장자축복을 받아들여 에서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축복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 야곱이 아버지의 입을 맞추자 이삭은 하나님의 향취를 맡을

성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主)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sup>1</sup>

<sup>1</sup> 여기서 ‘향취’란 단순히 야곱이가 몰래 갈아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에서의 체취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버지 이삭이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마귀를 속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해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이후 6천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 마귀를 전멸시

### (12) 이삭의 장자축복은 하나님 신이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과정

야곱이 갑쪽같이 축복을 받고 몰려나오자 에서가 땀을 씻으면서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슴의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진짜 에서의 음성을 들은 아버지 이삭은 “지금 나의 처지가 눈먼 장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인가? 하고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길 수 있는 구세주를 무사히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향취는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는 향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향취는 앞으로 출현할 구세주가 마귀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며 그 무기가 이슬성신의 향취로 나오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알 수 없도록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려 놓았던 것입니다(호세아 14:5). 또한 성경이나 찬송가에는 백합화가 구세주를 상징한다(합동찬송가 88장)고 은밀히 숨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구세주로 강림하시어 예멘동산 회복의 역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옛날의 모세와 같이 이슬만나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슬만나에서는 백합화 향취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계시록 2:17).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나?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옮겨지는 과정임을 알지 못했습니다.<sup>2</sup>

“야곱, 그 녀석의 이름을 왜 ‘속이는 자’라고 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재차 말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主)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창세기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중략)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빌어줄 복이 없다는 말에 비통해 하는 에서. William Hole 작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평소와는 달리 전혀 판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나 야곱보다 그 자신을 더 사랑해주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엄정하고 단호하신 것입니다.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 한편으로 매정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리만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정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젤라